

# 韓國傳統建築에서 물과 水空間의 意味에 관한 研究

## A Study on the Meaning of Water and Water Space in Korean Traditional Architecture

李英鎬\*

Lee, Young-Ho

金啓童\*\*

Kim, Kye-Dong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iscover the meaning of water and traditional water space by the literature review and field study of the water space in Korea. The water and water space were symbolized by mythology, eum-yang-oh-hang, feng-shui, taoism and confucian ideas, buddhism, shin-sun ideas, shijo and landscape painting. That is, the symbolic meanings of water and water space are melt in arts and thoughts. According to literature review and field study, the water and water space represent symbolic meanings, integration with nature, reflection of nature, territoriality, role of boundary, purgation, centralization and practical application.

Keywords : Korean Traditional Architecture, Water, Water space

### I. 서론

인간의 삶은 물과의 관련을 떠나 생각할 수 없다. 물 길을 따라 자리를 잡고 물을 중심으로 모여들었고, 생활뿐만 아니라 공간의 디자인에 이르기까지 물을 활용하여 보다 쾌적한 거주공간을 실현하고자 하였다.

전통사회에서의 수공간은 자연합일을 중시했던 선인들의 사고, 의식, 가치관 등이 반영된 상징체로서 심오한 상징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즉 선인들이 추구하던 이상향으로서의 자연, 특히 그 중요한 요소로서의 물과 산의 조화가 가지는 우주론적 상징의미를 거주공간에 구현하고자 한 것으로 거주공간의 중요한 구성요소로 자리잡아 한국인의 의식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쳤다.

반면에 서양의 수공간은 기하학적 형태에 따라 구성된 형식적 정원양식으로 인하여 기하학적 형태미에 치중하고, 서구인들이 가지고 있는 물의 긍정적 이미지를 보다 극적으로 표현하고자 한 것으로 한국의 수공간과는 엄연히 차이가 있다. 오늘날 서구화의 경향 속에서 한국의 수공간 연구를 전통 수공간에서부터 출발하고자 하는 것은 한국의 수공간을 이해하고 한국인이 추구하는 수공간을 모색하는 데에 유효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동양사상과 예술작품을 통해 선인들이 가지고 있던 물의 의미를 파악하고, 전통 수공간의 사례

연구를 통해 그 구성의 특성과 그 속에 내재된 상징의미를 구명하고자 한 것이다. 수공간의 바람직한 전개는 그 물리적 구성뿐만 아니라 물 자체와 수공간에 내재된 상징의미를 전통 수공간에서부터 찾아 현대적 맥락에서 재구성함으로써 가능해지리라 생각되기 때문이다.

### II. 물의 의미

#### 1. 神話에서 표현되는 물

인간은 자궁의 양수 속에서 최초로 생명을 얻고 자라나듯이 인간의 탄생과 삶은 물로부터 비롯된다. 한국민족설화에서 보면 큰 홍수로 세상이 물바다가 되어 인류가 멸망하고 후에 다시 사람이 태어나 인류가 퍼졌다고 한다<sup>1)</sup>. 또 민간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천지개벽은 큰 홍수로 세상이 물로 덮혀 없어지고 하늘과 땅이 맞붙어 버렸다가 다시 새롭게 열려 새 세상이 온다고 한다<sup>2)</sup>. 이처럼 물은 소거와 정화와 탄생을 통해 새로운 세상을 시작하게 하는 근원이다. 또한 제의에서도 반드시 솟발을 쪼고 정화수를 바치며 술을 부어 놓는데, 이는 모두 제의공간 안에 있는 일상적인 현실(세속)을 소거 정화시키는 의미로 해석된다. 즉 제의가 이루어지는 공간을 소거 정화시킴으로서 세속적인 영역과 구분 짓는다. 전통적인 지신밧기에서는 우물을 깨끗이 치우고 샘굿을

1) 손진태, 조선민족설화의 연구, 을유문화사, 1947, p.8. 김태근, 한국무속연구, 집문당, 1991, p.166에서 재인용  
2) 김태근, 한국무가의 원형, 구비문학, vol.3,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 p.175. 김태근, 위의 책, p.166에서 재인용.

\*정회원, 부산대학교 아동·주거학과 교수

\*\*정회원, 부산대학교 아동·주거학과 강사

올려 우물이 태초의 맑고 신성한 생명수의 원천으로 다시 태어나게 한다. 이처럼 물은 세상의 더러움을 씻어내고 새로운 세상을 창조하는 생명의 원천인 동시에 생명수를 공급함으로써 인간의 삶이 지속될 수 있게 한다.

신화학에서 말하는 '原水'의 개념도 이와 같은 것으로 태초에 먼저 물이 있고 그 물에서 인간계와 자연계가 형성되었다고 한다<sup>3)</sup>. 물에서 인간의 생명이 창조되었음을 보여주는 예들은 많다. 신라의 박혁거세는 나정, 부인인 알영은 알영정이라는 우물에서 태어나 우물은 탄생과 신성성을 상징한다. 또 고대의 기록에서는 동해에 여인들만 사는 환상적인 여인국이 있었는데 여기서는 생명의 창조를 위해 우물을 들여다보는 것만으로 아이를 가질 수 있다고 하였다. 우물 즉 물은 생명의 모태로서 아이를 갖기 원하는 여성들은 우물에 빌거나 우물물을 마심으로서 수태를 할 수 있으리라 믿었다. 특히 달이 비추는 우물물은 그 呪力이 더욱 확고하다고 믿었다. 보름날 새벽에 처음 물을 길는 행위를 일컬어서 '용알뜨기'라고 하는데, 샘물에 달빛이 비쳐들어 마치 달을 뜨는 것이나 다름없다. 물은 여성의 상징으로 여신은 샘, 즉 물의 신이며, 용신이기도 하다. 따라서 보름날 용알뜨기 믿음은 '샘=달=여성=대지'의 생명력과 관련된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같이 물은 여성성을 상징하는 동시에 생명력의 근원을 상징한다. 또한 물의 여성성은 조왕신앙에서도 볼 수 있다. 조왕의 구체적 형상인 물그릇은 '조왕중발'이라고 하는데 부뚜막 정면 벽이나 부뚜막 모서리에 흙으로 단을 만들거나 또는 세 갈래로 벌어진 나뭇가지 등으로 받침대를 만들어 중발을 놓고 집을 떠나 있는 자식들을 위하여 아침마다 정화수를 바치며 조왕에게 무사를 비는 조왕신앙은 모성의 상징이기도 하다<sup>4)</sup>. 또 민속에서 보면 물할미라는 것이 있는데 이는 藥水의 神으로 藥水는 불로장생을 보장하고 만병통치의 영약인 것으로<sup>5)</sup> 이 또한 물의 聖性和 여성성을 표현하고 있는 예이다.

## 2. 陰陽五行에서의 물

음양오행에서 물은 만물을 구성하는 오행(水, 火, 木, 金, 土)의 한 요소이다. 오행은 서로 相生相剋하는데 여기서 水는 金에서 生하여 木이라는 생명을 만들고 火를 이기지만 땅에 스며든다. 또 水는 방위로는 북방에 거하면서 계절로는 겨울을 주관하는 것으로 북쪽과 겨울의 의미를 표현하고 있다. 또 오행에서 물은 五常으로 智에 해당된다. 즉 물은 성질이 냉정하고 또한 아래

로 내려가는 성질이 있다.

한편 물은 음양에서 보면 陰의 속성을 지니는 것으로 흔히 陽의 속성을 지니는 불과 비유된다. 이러한 물의 의미는 祈雨祭에서 잘 표현되고 있다. 가뭄이 극심하여 대지가 불에 타오르는 것 같은 火의 양상은 곧 陽이다. 많은 경우 기우제는 남성에 의해 유교식으로 진행되기도 하나, 특히 민간신앙에 의한 주술적인 제의에서는 陰의 존재인 여성이 주재자가 되며 지역에 따라서는 특히 음성이 강하다고 여겨지는 과부를 반드시 포함시키기도 한다. 이와 유사한 예로 호남지방에서는 모내기를 할 때 딸을 많이 낳은 여성에게 모내기를 하게 하여 풍작의 원천인 비를 기원하는 예도 보여진다. 또 기우제에서 보면 다른 제의들과 달리 북문을 열어두고 남문을 닫았다는 물이 방위에서 북쪽에 거하는 것이기 때문이다<sup>6)</sup>. 즉 물은 음의 의미를 가지면서 여성을 상징하고 여성이 갖는 출산 능력과 동일시되는 것이다.

한편 이러한 陰陽의 속성은 상대적인 것으로 산과 관련해서 보면 형태에 있어서는 산은 높이 솟아 있기 때문에 陽이며 물은 낮은 곳에 있어서 陰이다. 그러나 그 속성으로 따지면 물은 움직이는 관계로 陽이 되며 산은 정지해 있기 때문에 陰이 된다.

## 3. 풍수지리설에서의 물

풍수지리설에서도 물은 중요시되어 得水法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胡舜申의 [지리신법]에 의하면 [산은 본래 그 性이 靜이요, 水는 그 性이 動이다. 고로 그 본성에 비추어 말하면 산은 陰에 속하고, 水는 陽에 속한다. 그래서 陰은 형체를 주로 하고 陽은 用을 주로 하기 때문에 吉凶禍福은 물에 있어 더욱 잘 나타난다고 하였다. 대체로 山水 양자를 人體에 비하면 산은 몸체와 같고 水는 血脈과 같다. 山水도 이와 같이 水와 山이 합쳐지지 않으면 산의 吉兆는 성립하지 못한다고 하여 풍수에 있어 水의 중요성을 들고 있다. 그런데 물은 원래 流動을 본성으로 하지만 그 본성대로 유동해 버리면 아무리 好勢의 산과 會合한다 할지라도 生氣의 醇化를 이룰 수가 없고, 오히려 산의 생기까지도 씻어버리게 된다. 그래서 奔流하는 물은 凶水로 보고 꺼리는 것이다. 따라서 물로서 朱雀을 형성할 때에는 결코 약동해서는 안된다. 왜냐하면 물이 천천히 흐르지 않으면 成局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이다. 즉 직선으로 흐르는 물 주위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어 기를 흩어지게 하므로 정자 등을 세워 경치를 감상하는 것은 관계없으나 사람이 살 터전으로서

3) 金烈圭, 韓國의 神話, 一潮閣, 1993, p.112.

4) 任재해, 한국민속과 오늘의 문화, 지식산업사, 1994, P.320.

5) 金烈圭, 앞의 책, p.115.

6) 金義淑, 韓國民俗祭儀와 陰陽五行, 집문당, 1993, pp. 266-272.

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보았다. 또한 바다와 같이 물만 있는 것은 음이 너무 강하여 사람이 살 터전으로서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하여 山水의 조화를 이상으로 여겼다.

풍수지리에서 이러한 물의 중요성은 명당이라 할 수 있는 많은 形局들이 물과 관련되어 있음에서도 알 수 있다. 김광언의 분류에 의하면 전국적으로 가장 빈도가 높은 형국이 臥牛形이었고, 그 다음이 渴馬飲水形이었다. 또 行舟形, 蓮花淨水形, 蓮花到水形 등 명당으로 일컫는 많은 형국이 물과 관련되어 있다<sup>7)</sup>. 이는 물을 얻을 수 있는 곳이 명당이 되는 것이며 이는 곧 물이 인간생활에 필수적인 요소임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때의 물은 반드시 이롭기만 한 것은 아니어서 行舟形처럼 배모양의 마을이 물에 떠 있는 형국일 때는 배 안에 물이 들어오지 않게 우물을 최소한으로 파는 등 조심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 또한 飛龍登天形, 五龍爭珠形, 雲龍吐雨形 등 물의 신이라고 할 수 있는 龍과 관련된 형국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이는 물의 신성성을 나타낸다<sup>8)</sup>. 명당이란 살기에 좋은 터전을 말하는 것이고 따라서 인간생활에 필수적인 물을 얻을 수 있는 곳이 바로 명당인 것이다. 그러나 물의 세력이 너무 클 때는 인간의 힘으로 이를 다스리지 못하며 음양의 조화가 깨어지기 때문에 피하고자 했던 것이다.

그런데 생활에 필요한 물만을 확보했다고 완벽한 삶의 터전이라고 할 수 없다. 이중환은 택리지에서 산수에만 취해서 삶을 영위할 수는 없으므로 기름진 땅이 있는 곳에 집터를 잡고 그곳에서 십리나 만나질 정도 떨어진 곳에 아름다운 산수가 있어 시름을 풀고 돌아올 곳을 장만해 두는 것이 좋다고 하였다<sup>9)</sup>. 즉 자연을 느끼고 세속의 시름을 씻을 수 있는 물을 필요로 하였고



그림 1. 행주형 또는 태극형의 예(하회마을)

이는 산수가 좋은 곳에 정자를 만들거나 주거내의 조정속으로 자연의 물을 끌어들임으로서 해결하고자 하였다.

#### 4. 道家 및 儒敎思想에서 표현되는 물

자연의 원리 속에서 인간의 이치를 발견하고 인간의 도리를 찾고자 함은 고대 동양 철학자들의 중요한 사유의 방법이였으며, 이 때 물은 다양한 이미지를 가지고 자연의 모든 원리를 표현하는 것으로 중요한 사유의 대상이었다. 노자와 공자 또한 물의 이미지에서 자연의 원리와 삶의 방식을 찾아내고 있다.

##### 1) 道家思想

노자에 따르면 '上善若水, 水善利萬物而不爭, 處衆入之所惡, 故幾於道...'라 하였다. 즉 가장 좋은 선은 물과 같다. 물은 만물을 이롭게 하면서도 다투지 않으며, 못 사람이 싫어하는 낮은 곳에 처하기를 좋아한다. 그러므로 道에 가깝다는 것이다. 노자가 道라고 이름한 것은 꾸미지 않는 無爲이다. 꾸미지 않고 있는 그대로, 자연 그대로의 상태인 無爲인 것이다. 만물에 생명을 창조하고 유지해 나가는 유익한 존재이지만 자연의 지형에 따라 꾸미지 않고 자연스럽게 있는 그대로 아래로 흘러가면서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이롭게 하는 존재인 물의 이미지는 노자가 생각하는 도의 모습, 성인의 모습과 가장 닮아 있다. 이러한 도가사상의 영향은 많은 선비들이 산과 물이 있는 곳을 찾아 은둔하는 삶을 즐기게 하거나, 아니면 집안에 별서정원을 만들거나, 산수화를 벗삼으며 생활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할 것이다.

또한 노자는 '天下莫柔弱於水, 而攻堅強者莫之能勝. 以其無以易之. 弱之勝強. 柔之勝剛, 天下莫不知, 莫能行...'이라 하였다. 이는 천하에 물보다 유약한 것이 없으나 단단하고 강한 것을 공격하는데는 물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 이것은 물을 대신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다<sup>10)</sup>. 즉 어떠한 그릇에 따라서도 모습을 바꾸고 아주 작은 틈이라도 스며들어 부드러움을 보이지만 조금씩 조금씩 강한 들의 모양도 바꾸어 놓을 수 있는 물의 강함을 표현하고 있다.

##### 2) 儒敎思想

공자가 말하기를 "知者は 樂水하고 仁者は 樂山이니 知者は 動하고 仁者は 靜하며 知者は 樂하고 仁자는 壽나라" 라고 하여 지혜로운 자는 물을 좋아하고, 어진 자는 산을 좋아한다. 지혜로운 자는 움직이나 어진 자는 고요하다. 그리고 지혜로운 자는 즐겁게 살고, 어진 자는 오래 사느니라 라고 하였다. 공자는 군자가 강물을

7) 김광언, 풍수지리, 대원사, 1998. pp.24-26.

8) 김광언, 앞의 책, p.32.

9) 李重煥 著, 李翼成 譯, 擇里志, 을유문화사, 1993. p.195.

10) 老子, 78장, 사라 알란, 오만중 옮김, 공자와 노자 그들은 물에서 무엇을 보았는가, 예문서원, 1999. p.204.에서 재인용

불 때마다 관조하는 이유에서 '모든 곳으로 퍼져 나가고 모든 곳에 생명을 주면서 아무 것도 하지 않는 물은 德과 같다. 아래로 흐르면서 꾸불꾸불 돌지만 항상 같은 물의 원리를 따르는 물의 흐름은 義와 같다. 솟아올라 결코 마르지 않고 흐르는 것은 道와 같다. 수로가 있어 물을 인도하는 곳에서 듣는 그 물소리는 반향하는 울음소리 같고, 백길의 계곡을 두려움 없이 나아가는 것은 마치 勇과 같다. 수평을 재는 자로 사용할 때의 물은 마치 法과 같다. 가득해서 덮개가 필요 없을 때의 물은 마치 正과 같다. 물은 유순하고 탐색적이어서 가장 작은 틈으로도 들어가는데, 이 때의 물은 마치 察과 같다. 물을 거치거나 물에 들어가 선명해지고 정화되는 것은 마치 선하게 되는 것(善化)과 같다. 만 번이나 꺾여 흐르지만 항상 동쪽으로 흘러가는 것은 마치 志와 같다'<sup>11)</sup>고 하여 물은 동적인 생명력, 지혜, 순리성, 영속성, 강함, 수평, 공평, 유연성, 정화성 등의 이미지로 나타나 인간이 자연에서 찾을 수 있는 이치를 상징의미로 함축하고 있다.

또한 맹자는 백성들을 다스리는 통치자는 인과 의를 행함으로써 백성들이 물 흐르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자신에게 오도록 해야 한다고 믿었다<sup>12)</sup>. 이는 물이 가진 가장 중요한 속성 중의 하나로 아래로 흐른다는 것이다. 즉 맹자는 물이 항상 순리대로 아래로 흐른다는 사실은 인간의 본성이 기본적으로 선한 곳을 향한다는 것과 동일하다고 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물은 그 하나만으로 존재가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산이 있음으로 해서 그 우주론적인 의미를 완성한다. 물이 흘러가는 動體라면 산은 머물러 있는 靜體이다. 산은 하늘을 향해 올라가지만 물은 아래를 향해 흘러간다. 산과 물은 바로 우주이었고, 따라서 원시시대부터 이 둘은 중요한 제사이었다.

거주공간에서의 수공간 또한 이러한 우주론적 의미의 구현을 이상으로 하여 물과 산의 조화로써 자연의 이치를 표현하고 군자가 따라야 할 바람직한 인간상을 제시하고자 했다.

### 5. 佛敎와 神仙思想에서의 물

불교에서 말하는 극락정토와 신선사상에서 신선들이 살고 있다고 믿는 세계는 모두 인간에게 삶의 고통과 죽음의 두려움이 없는 이상향으로서 인간들은 그들이 현실적으로 찾을 수 없는 이 이상향의 세계속에서 낙원을 창조해 내고자 했다. 즉 사찰은 현세에 살고 있는 인

간에게 있어 하나의 淨土였다. 따라서 많은 사찰들은 산의 溪流를 건너 들어서도록 지어졌다. 불사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계곡의 물은 불교적 우주관을 나타내는 수미산의 섬 주위를 둘러싸는 항수해의 의미를 지니는 것이다.

신선사상에서도 봉래, 방장, 영주라는 神山이 있어 여기에는 신선들이 영원한 삶을 즐기고 있다고 믿어 이를 본 따 연못을 파고 그 안에 섬을 쌓아올려 神山으로 만들어 신선의 삶을 즐기고자 하였다. 경주의 안압지, 남원의 광한루, 부여의 궁남지 등이 그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으며, 전통주거에서도 선교장 등에서처럼 연못을 파고 신산을 만드는 많은 예를 볼 수 있다. 여기서 물은 인간세상과 이상향의 세계를 구분 지어주는 경계로서의 상징적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 6. 예술작품에서 표현되는 물

#### 1) 문학작품

##### (1) 시조

선인들의 물에 대한 사고와 의미는 시조에서도 알 수 있다.

구름 빛이 좋다 하나 검기를 자로 한다  
바람소리 맑다 하나 그칠 적이 하노메라  
좋고도 그칠 리 없기는 물 뿐인가 하노라  
- 윤선도의 五友歌 중 水

청산은 어찌하여 만고에 푸르르며  
유수는 어찌하여 주야에 닳지 아니난고  
우리도 그치지 마라 만고상청하리라  
- 이 황

윤선도와 이황의 시조에서는 물의 영원성과 연속성을 표현하고 있다. 변함없이 맑고 푸른 물의 속성 그것은 항상 변함없는 선비가 따라야 할 군자의 속성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두류산 양단수를 예 들고 이제 보니  
도화 뜬 맑은 물에 산영조차 잠겼으라  
아이야 무릉이 어디오 나는 연가 하노라  
- 조 식

조식의 시조에서는 하늘과 산천 모두를 그 속에 담아 내어 자연의 아름다움을 하나로 어우르는 물의 아름다움 내지는 넉넉함, 물의 반영성을 노래하고 선비들이 추

11) 梁啓雄, 荀子 釋, 사라 알란, 위의 책, p.53에서 재인용  
12) 사라 알란, 위의 책, p.76-77.

구하는 이상향을 보여주고 있다.

말없는 청산이요 태없는 유수로다  
 값없는 청풍이요 임자없는 명월이라  
 이중에 병없는 몸이 분별없이 늙으리라

- 성 혼

청산도 절로절로 녹수도 절로절로  
 산절로 수절로 산수간에 나도 절로  
 이 중에 절로 자란 몸이 늙기도 절로절로

- 김인후

성혼과 김인후의 시조에서는 자연과 인간이 하나되어 말없이 흐르는 물과 더불어 유유자적하며 무위의 도를 실천하는 것을 이상으로 하고 있다.

또한 경포호를 묘사한 글에서도 '하늘에 뜬 달, 바다에 비친 달, 호수에 그려진 달, 술잔에 어린 달, 그리고 그대의 눈동자에 떠 있는 그리운 달 하나까지.... 다섯 개의 달이 뜨는 곳 경포호....'라고 노래하고 있어 물의 성스러움과 명경수로서의 이미지를 잘 표현하고 있다.

여기서 보면 물은 선비들이 추구하는 이상적 삶의 본보기로서 영원성, 연속성, 반영성, 신성성, 자연합일성 등 다양한 이미지로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고전문학에서 표현되는 물의 이미지는 고여 있는 물만이 아니라 흐르고 있는 강물에서조차 정적인 이미지가 주가 되고 있다. 이는 많은 서양의 문학작품들이 怒濤, 폭포 등으로 물의 역동적인 이미지를 표현하면서 그 속에 뛰어들어 미지의 희망찬 세계로 도전해야 하는 존재로 물을 표현하고 있는 것과는 상반된다. 물론 한국의 고전문학 중에서도 박지원의 열하일기에서 물의 역동성을 표현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성난 물결, 노한 물줄기, 장성을 쳐부수기라도 할 듯한 기세 등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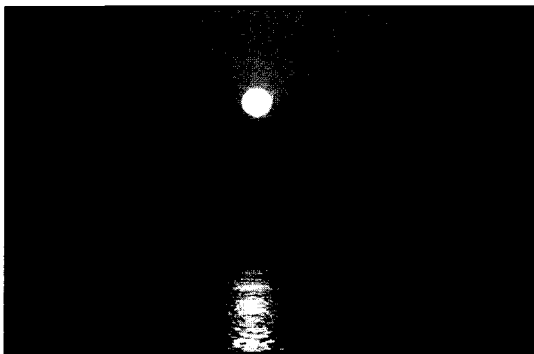


그림 2. 경포호

로 강물을 묘사하고 있지만 이 때의 물은 두려움의 대상이다. 물이 불어난 강을 건너는 장면에서 보면 '물을 건너는 사람들이 蕩蕩히 돌아 흐르는 물을 보면, 금실 거리고 으르렁거리는 물결에 몸이 거슬러 올라가는 것 같아서 갑자기 현기가 일면서 물에 빠지기 쉽기 때문에, 그 얼굴을 쫓힌 것은 하늘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솟제 물을 피하여 보지 않기 위함이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다. 즉 역동적인 물은 서양에서와 같이 정복하려는 것보다 회피해야 하는 존재로서의 이미지로 표현되고 있다 할 것이다.

## 2) 산수화

산수화는 유람을 즐기던 宗柄이라는 사람이 늙어서 더 이상 山水를 유람할 수 없게 되자 자기의居室에 옛날 노닐던 山水를 그려 걸어놓고 즐기면서 自然道를 음미하였다<sup>13)</sup>는 데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산수화에는 산과 물이 함께 표현되는데, 이는 음양의 조화에 의한 자연의 이치를 나타내고 이상향을 표현한다. 또한 산수화에는 많은 경우 한 두체의 오두막이 그려져 있고 누구인지 알 수 없는 다양한 삶의 모습이 함께 그려지기도 한다. 이 때 물이나 산, 인간이 두드러지지 않고 서로 일체가 되고 있다.

진경산수화를 대표하는 겸재 정선의 금강산만폭동도를 보면, 계곡 사이에서 흘러나온 두 갈래의 물이 함께



그림 3. 금강산만폭동도

13) 김경자, 山水畵의 水性 考究, 한양대학교한국학연구소, 한국학논집, 1985.8. p.228.

모였다가 아래로 흐르는 모습이 산과 조화를 이루면서 전체 그림에 생동감을 주고 있다. 또 폭포를 묘사한 그림에서는 많은 경우 폭포 위에 신선이 살고 있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데 이때 폭포는 아무나 쉽게 범접할 수 없는 신성함과 함께 속세와 구분하는 경계로서의 이미지를 표현하고 있다.

이상에서 선인들이 가지고 있던 물의 이미지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생명을 창조하고 지속시키는 원천이며, 둘째, 자연과 인간의 영혼을 정화시키고 속세의 고통도 씻어 내어 이상향의 세계로 이끄는 정화성과 신성성을 지니며, 셋째, 산과 조화되어 우주를 상징하고, 순리대로 흘러 자연의 이치를 나타내며, 넷째, 자연의 순리대로 흐르는 부드러움과 가장 단단한 것도 서서히 닳아버리게 하는 강함을 지니며, 다섯째, 자신이 담기는 그릇의 모양에 따라 어떠한 모양도 취할 수 있는 융통성과 유연성을 가지며, 여섯째, 인간 생명의 창조, 陰性, 유연하고 부드러우면서 강한 특성으로 인하여 여성성을 나타내며, 일곱째, 고요할 때 항상 수평을 이루어 공평성과 정당성을 가지며, 여덟째, 침전물을 정화하는 自淨性과 고요하고 맑을 때 만물을 비추는 반영성을 가진다.

### III. 水空間의 意味

거주공간에서 물은 크게 삶의 유지에 관련된 물과 조경요소로서의 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물은 삶의 터전을 결정짓고 인간의 삶을 영위하게 했으며, 교역을 위한 길이 되었고, 적의 침입을 막을 수 있는 방어막이 되기도 하였다.

한편 조경에서는 자연에서의 산과 물의 조화를 이상으로 하여 거주공간에 구현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선인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 가치관 등이 수공간의 구성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쳤고, 이것이 한국 수공간의 특성으로 나타나고 있다.

여기서는 거주공간에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 수공간의 사례분석을 통해 수공간의 의미를 파악하고자 한다.

#### 1. 수공간의 사례분석

사례분석을 위해 수공간은 주거공간에서 나타나는 수공간, 주거와 멀리 떨어져 경치 좋은 곳에 자리잡은 누정·원림 등의 수공간, 마을의 수공간, 궁궐·사찰 건축 등의 수공간으로 구분하였다. 조사는 연구자의 답사와 문헌자료에 의해 15사례가 이용되었으며, 구체적인 사례분석은 <표 1>에서 제시하였다<sup>14)</sup>.

#### 2. 수공간의 의미

<표 1>에서 나타난 수공간의 의미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 1) 상징성

한국의 수공간, 특히 조경에서의 수공간은 동양사상이 상징의미로 함축되어 있는 특성을 가진다. 이는 조경적 수공간의 대부분의 사례에서 보여지는데, 방지와 원형의 섬을 만들어 음양사상과 도가적인 신선사상을 상징하고 있으며, 사군자를 심어 선비의 절개를 상징하고, 연꽃을 심어 불교적 이상향을 구현하고 있다.

##### 2) 자연합일성

자연을 거스르지 않고 자연을 그대로 활용하면서 조화를 이루고자 하는 자연합일성은 한국의 수공간을 인공적이고 역동적인 서양의 수공간과 구별짓는 가장 중요한 특성이라 할 것이다. 선교장, 독락당의 계정, 소쇄원, 농월정, 명옥헌 등은 자연합일적인 특성을 나타내는 대표적 예라 할 것이다.

##### 3) 반영성

특히 전체 사례 중 6사례에서 물의 반영성이 잘 표현되고 있는데, 물에 비친 하늘과 나무를 통해 우주와 자연을 품는 여유로움과 철학적 사고를 엿볼 수 있다. 이 때의 물은 경회루의 연못처럼 큰 것이어도 되지만, 마당에 놓인 작은 돌확에 담긴 물이라도 상관없다.

##### 4) 영역성

물을 중심으로 수공간 영역은 다른 영역과 분리된다. 즉 물을 중심으로 형성된 영역은 비일상의 영역이 되기도 하고 마을의 예들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여성의 영역 내지는 사용가구들만의 영역이 되게 한다.

##### 5) 경계성과 정화성

송광사의 예에서 물은 일상의 세계와 이상향의 세계, 현세의 세계와 극락세계를 구분 짓는 경계로서의 역할을 하며, 현세의 오염을 씻고 극락의 세계로 이르게 해 주는 정화성의 의미를 표현한다.

##### 6) 중심성

한국의 수공간에서 보여지는 물의 중심성은 거의 모든 사례에서 보여지는데, 서양에서 광장의 중심에 있는 분수처럼 기하학적인 중심을 형성하는 것과는 조금 다르다. 전체 공간의 물리적인 중심에 수공간이 자리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에도 심리적인 중심을 이루고 있다. 심지어는 송광사의 경계를 나타내는 입구의 물에서도 공간의 중심성을 볼 수 있다.

##### 7) 실용성

14) 계정, 소쇄원, 농월정, 명옥헌원림, 광한루, 송광사는 연구자의 답사를 통해, 나머지자료는 문헌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하였다.

표 1. 수공간의 사례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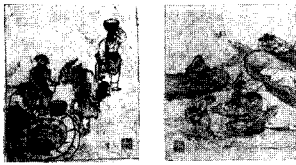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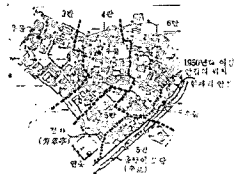



구분	명칭	수공간	특성	수공간의 의미
주거건축	강릉 선교장 (1810년대)		집앞쪽에 방형의 연못을 파고 가운데 神山을 상징하는 섬을 만들었는데, 섬의 아래 부분 높은 방형을 이루나 흙으로 쌓인 윗 부분은 시각적으로 원형을 이룬 산아래 자리를 잡아 불과 산이 일체가 되는 경관을 이루며, 마을에서 진입하면 본채에 앞서 주거의 중심공간으로서의 이미지를 가짐	도가의 신선사상 중심성 음양오행사상 자연합일성
	영양 서석지 (1600년대)		방형의 연못 속에 원형의 섬을 만들어 이상향의 세계를 표현연못안에는 연꽃을 심었고, 동북쪽 못가에서 연못 안으로 내뿜은 석단에는 송,죽,매국을 심어 사우단이라고 하여 선비의 절개를 상징못바닥에 암반을 이룬 돌을 상서로운 돌로 다양한 의미를 부여	도가의 신선사상 음양오행사상 선비사상 불교적 이상향
	묘동 박황씨가 (1769년)		별당채 앞에 방형의 연못을 파고 동근 섬을 만들어 두고 연못에는 연꽃을 심어 이상향의 세계를 표현	도가의 신선사상 음양오행사상 불교적 이상향
	독락당의 계정 (1516년)		자연적인 계곡 옆에 주거가 자리하여 인공적인 손길을 전혀 가하지 않으면서도 외부의 수공간이 주거내부의 것인 양 일체화되어 있는 것으로 도가적인 자연합일 사상이 가장 잘 반영된 대표적인 수공간	자연합일성 도가의 신선사상
	정음 김씨가 들화 (1780년대)		마당에 돌화를 두고 그 안에 불을 담아 물속에 비친 하늘과 주위의 나무가 하나로 뭉뚱들지 않은 돌의 표면과 나무가 어우러져 자연스럽고 소박함을 잘 표현하고 있음	자연합일성 반영성
누정·원림	담양 소쇄원 (1500년대)		자연암반과 계류를 긴 공간에 자리를 잡아 담을 치고 원을 구성하고 있다. 계곡을 타고 흐르는 물은 작은 폭포를 이루며 떨어지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대나무 흙을 타고 방형의 연못에 모였다가 다시 흘러간다. 자연계곡을 그대로 살려 원을 꾸미면서도 담으로 둘러쳐 내부화시키고 이를 자연에게 맡기지 물려주려 함으로써 현세적인 소유욕을 나타내고 있다	자연합일성 도가의 신선사상
	함양 농월정 (1721년)		계곡의 넓은 암반 옆에 자리를 잡아 연못 같은 넓은 암반은 고요한 물의 이미지를 느끼게 하고 비가 와서 물이 많아지면 흐르는 물소리가 생명력을 표현하고 있다. 달을 희롱한다는 정자의 이름은 꾸미지 않은 자연을 벗삼아 유유자적하는 도가적 선비의 삶을 표현하고 있다.	도가의 신선사상 자연합일성
	원터마을 방초정 (17세기초)		마을을 들어서는 입구에 방형의 연못과 원형의 섬이 있으며 정자가 세워져 있음마을의 입구에 자리잡아 마을전체의 상징적 공간이 되는 동시에 일상적 생활의 중심이 되는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수행	중심성 음양오행사상 도가의 신선사상

표 1. 수공간의 사례분석 (계속)

구분	명칭	수공간	특성	수공간의 의미
누정·원림	담양 명옥헌원림 (1600년대 중반)		자연계류를 끌어들이어 전통적인 중도형의 방지를 형성하고 있는데 명옥헌에서 보면 중도를 축으로 좌우가 약간의 대칭성을 띄면서 전체의 중심공간이 되고 있다. 방지 주위에는 자미나 무를 집단적으로 심어 도연명의 무릉도원을 흉내내고자 한 의도가 숨어있는 것으로 보임	중심성 반영성 도가의 신선사상 자연합일성
	남원 광한루 (1580년대)		누 앞에 흐르던 개울을 넓혀 平湖로 만들어 은하수를 상징하고, 오작교를 상징하는 다리를 만들어 돌湖中에는 세 개의 섬을 만들어 하나에는 綠竹을, 하나에는 백일홍을, 다른 하나에는 蓮花를 세웠다고 되어 있음	도가의 신선사상 반영성
마을	우물가와 빨래터		외부의 출입이 제한된 전통사회의 여성들에게 우물과 빨래터는 여성의 외부활동의 중심영역이 됨우물은 인공적으로 형성된 여성의 영역인 반면 빨래터는 자연적인 수공간 영역, 우물은 몇가구씩 사용하는 소규모 영역이고 빨래터는 마을전체의 여성들이 함께 사용하여 마을구성원 전체의 영역이기도 함	영역성 중심성 실용성
	원터마을		전통마을에서 우물은 마을전체에 몇 개만이 있어 여러가구가 공동으로 사용하므로서 공동의 우물을 사용하는 사람들끼리 생활공동체를 형성원터마을의 경우 1950년대 이후 조성된 5반을 제외하고 우물을 중심으로 행정구역인 반이 나누어짐	영역성
궁궐·사찰	경주안압지 (674년)		절묘한 곡선으로 이루어진 연못속에 방장, 봉래, 영주인 三神島가 조성되어 있고 북쪽과 동쪽의 호안에도 假山이 연속되어 신선과 선녀가 사는 이상향의 세계를 축소하여 표현	도가의 신선사상 반영성 중심성
	경희루 (1867년)		방형의 연못에 신선이 살고 있다는 삼신산을 본 딴 원형의 섬을 만들고 연못가에 누각을 지음누를 중심으로 동서의 두 개의 섬이 양분되는 좌우대칭적인 배치 고요하게 고인 물에 하늘과 나무 등 주위의 자연이 그대로 비쳐 온 우주를 품에 안고 있으면서 경복궁의 중심적인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함	음양오행사상 도가의 신선사상 반영성 중심성
	송광사 (신라말)		계곡을 건너 사찰이 자리하고 있어 다리를 건너 사찰로 들어설 수 있다. 이 때 계곡의 물은 현세와 부처님이 계시는 극락세계를 구분하는 경계로서의 의미를 가지며 현세의 오염을 씻어 주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진다.	정화성 경계성 반영성

사진출처 : 정재훈, 한국의 옛 조경, 대원사, 1998(서석지, 박황씨가, 송광사)  
김광연, 정읍김씨집, 열화당, 1988.(정읍김씨가 뜰)



김홍도의 그림 우물가와 빨래터는 실용적 수공간의 대표적 예이다. 이는 작업공간으로서뿐만 아니라 여성들의 모임공간으로서의 역할도 가진다.

#### IV. 결 론

전통사회에서의 수공간은 선인들의 사상, 우주관, 가치관 등이 의미로서 함축되어 표상되고 있다. 특히 조경에서의 수공간은 선인들이 끊임없이 추구하던 이상향의 구현체로서의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선조들에게 있어 물은 생명의 원천이며, 정화성과 신성성을 지니며, 우주의 상징체이며, 자연의 이치를 내포하고, 강하면서도 유연하여 여성성을 지니며, 공평하고 정당하며, 자정성과 반영성의 이미지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공간은 이러한 물의 이미지가 주변의 물리적 요소들과 어떻게 관련하여 구성되는가에 따라 특징지워진다. 사례분석결과 특히 조경에서의 한국의 수공간은 선인들이 끊임없이 추구하던 이상향의 구현체로서 한국사상과 가치관이 반영된 상징성, 자연을 이상으로 하여 자연에 순응하는 자연합일성, 우주를 담아 이상세계를 추구하고자 하는 반영성, 삶의 터전을 구분 짓는 영역성, 일상과 이상의 세계를 구분하는 경계성, 현세의 오염을 씻어내는 정화성, 공간의 물리적 심리적인 중심성으로서의 특성을 가진다. 또한 작업공간에서의 수공간은 실용성을 가지면서 여성공간으로서의 영역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전통적인 수공간의 의미는 오늘날의 수공간과

는 큰 차이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상적 바탕이 현대인과 전혀 무관한 것이 아니라 무의식의 한 단면을 형성하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재조명은 한국의 수공간을 바르게 이해하는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한국인의 정서에 맞는 수공간의 발전적 전개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1. 김경자, 山水畵의 水性 考究, 한양대학교한국학연구소, 한국학논집, 1985.8.
2. 김광언, 풍수지리, 대원사, 1998.
3. 김열규, 韓國의 神話, 一潮閣, 1993.
4. 金義淑, 韓國民俗祭儀와 陰陽五行, 집문당, 1993.
5. 김태곤, 한국무속연구, 집문당, 1991.
6. 朴時翼, 周易에 의한 물의 상징성 分析, 대한건축학회지, 36권 2호, 통권 165호, 1992.3.
7. 박연곤, 한국의 정자, 대원사, 1998.
8. 사라 알란 지움, 오만종 옮김, 공자와 노자 그들은 물에서 무엇을 보았는가. 예문서원, 1999.
9. 俞炳林 외, 朝鮮朝 庭園의 原型에 관한 研究, 서울대학교 환경계획연구소, 1989.
10. 李重煥 著, 李翼成 譯, 擇里志, 을유문화사, 1993.
11. 임재해, 한국민속과 오늘의 문화, 지식산업사, 1994.
12. 林忠伸, 母空間의 原型 : 물과 向天的 흐름, 대한건축학회지, 25권 6호, 통권 103호, 1981.12.
13. 鄭臚昨, 한국의 정원, 대우학술총서·인문사회과학 20, 민음사, 1991.
14. 정재훈, 한국의 옛 조경, 대원사, 1998.
15. 崔昌祚, 韓國의 風水思想, 대우학술총서·인문사회과학 10, 민음사, 1988.
16. 韓弼元, 傳統 農村마을에서의 물의 意味, 대한건축학회지, 36권 2호, 통권 165호, 1992.3.